"최악 편성"… 내년 예산안 고강도 심사 예고

도의회 예결특위, "법령·조례 무더기 위반" 비판
제주도, 해명자료 통해 반박… 심사 앞두고 신경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고강도 심사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3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 심사를 하루 앞둔 2일에는 예결특위 전문위원실과 제주도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제주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했다.

이외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출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의 여유재원을 모아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해 기금 목적외 사업비로 지출함으로써 24개 기금의 존립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안 분석 결과 세출구조조정이 없었고, 재정압박을 이유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까지 모조리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도지사가 시정연설에서 밝힌 확장적 재정정책이 1회성에 그치고, 2021년 이후에는 재정확장을 위한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송영훈 예결특위위원장은 "제주도의 재정위기는 세출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재정분권에도 대비하지 못한 제주도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면서 "재정위기를 핑계로 법령과 조례를 대규모로 위반하고, 미래세대의 채무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내고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도는 전출금은 전출시기(당초 예산, 추경예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여건상 당초 예산이 미반영됐을 뿐, 내년 회계연도 내 법정전출금을 편성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도는 "법령과 조례위반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미편성에 따른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활용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며 "무리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해 기금 목적 외 사업비를 지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기금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의 규정에 의거 설치했으며, 사용용도가 동법에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목적 외 지출 주장은 지방기금법의 취지에 대한 해석 오류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공항 관련 정부 내년 예산안 '주목'

지난 1일 본회의 자동 부의… 9·10일중 의결 가능성
제2공항 기본설계 예산 감액·부대의견 반영 등 '관심'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제2공항 관련 예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고 예결위는 심사기한 연장을 요구한 상태로, 9일 또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용역비로 324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 등과의 면담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및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편성 등을 보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의회 특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5월 14일까지 6개월간으로, 이같은 요구 사항이 반영된다면 예산은 일정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정부가 수립한 예산은 공항 기본설계 기간이 1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2020년도에는 75%의 공정을 적용한 금액이다.

예산 자체를 감액하는 대신 예산 집행과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밝히는 부대의견이 명시될 수도 있다. 도민의견 수렴을 지켜본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명시된다면 예산을 둘러싼 논란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 소속 위성곤 의원은 2일 제2공항과 관련해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지만 절차적 투명성을 비롯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문제 제기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2공항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전국 스마트농업 전문가 제주에 모인다"

5~6일 역량강화 세미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국의 스마트농업 전문가들이 제주에 모인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호텔 빠레브에서 '전국 스마트농업 전문가 역량강화 세미나 및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농촌진흥청과 전국 9개 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스마트팜 생육조사 요원과 연구 담당자 등 130명이 참석한다.

5일에는 김규랑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의 '기상 빅데이터 이용 및 활용 연구', 김진웅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지도사의 '선배 스마트농업 전문가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6일에는 조영열 제주대학교 교수의 'DIY 스마트팜', 이혜림 농촌진흥청 연구사의 '농업빅데이터 활용 방안' 등의 강의가 펼쳐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 스마트팜 보급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제주형 스마트농업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딸기와 파프리카, 마늘, 양파 등 4개 작목을 대상으로 생육·환경 빅데이터를 수집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전국 평가 나설 제주 '우수사례' 선정

2019 지자체 합동평가 앞서
도, 자체 경진대회 통해 선정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을 위한 '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10건(최우수 1·우수 4·장려 5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나설 우수사례를 뽑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우수상은 제주도 디지털융합과의 '최첨단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제주 구현'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의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한 농업냉난방 시스템 전국 최초 개발'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의 '잠들지 않는 제주 야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제주시 농정과의 '제주산 황칠나무의 백년지대계'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의 '청년 경험 업(UP), 역량 더하기(Plus) 프로젝트' 등이 선정됐다.

최우수팀에게는 200만원, 우수팀은 100만원, 장려팀은 6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제주도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 구축

수요-생산물품 직접 매칭
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키로

제주도는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는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 등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력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정보와 공공시장의 수요 정보를 매칭하고,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호 공유해 필요한 물품과 용역 등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도는 공공기관 구매 계획 및 예산 정보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부터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 및 유통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민간주도로 내년에 설립되는 가칭 '제주유통상사'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활성화와 매출 증대를 도모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제 심포지엄
세계기록유산의 가치와 사례

□ 주 제
세계기록 유산의 가치와 사례
("UNESCO's Memory of the World : the value and cases")

□ 일 시
2019. 12. 06. (금)
* 심포지엄 개회식: 12. 06. 13:00

□ 장 소
아스타 호텔 (제주시)

□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 주 관
제주4·3평화재단

□ 주요일정 및 프로그램

12/6 (금)	· 개회식 · 기조 강연 · 토론 발제 · 종합토론

□ 프로그램

날짜	시간	프로그램	장소
12/6 (금)	13:00~13:30	개회식 환영사 축 사	아스타호텔 코스모스홀
	13:30~14:30	기 조 강 연 세계기록유산의 의미와 중요성 얀 보스(Jan Bos)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등재심사소위원회위원장	
	14:30~15:10	토 론 발 제 사례1. 대한민국 세계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안종철 | 현대사회연구소 소장 (전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장)	
	15:10~15:20	휴 식	
	15:20~16:40	사례2. 브라질 세계기록유산 "브라질 군사 정권의 정보 및 반정보 네트워크 기록물군(群) (1964-1985)" 비토 폰세카(Vitor Fonseca)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남미·카리브해 지역위원회 등재심사소위원회 위원 사례3. 캄보디아 세계기록유산 "투오슬렝 학살 박물관 기록물" 헬렌 자비스(Helen Jarvis)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등재심사소위원회 위원장	
	16:40~18:00	종 합 토 론 좌장: 노용석 |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김귀배 |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의장 • 김영철 |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공동대표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JU 4·3 제주4·3평화재단 JEJU 4·3 PEACE FOUNDATION